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조선해양, VLCC 2척 수주

한국조선해양이 유럽 소재 선사로부터 300,000DWT급 VLCC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총 계약금액은 1,975억원이며 인도기한은 2022년 8월까지라고 공시됨. Clarksons에 따르면, 2025년까지 연평균 43척의 VLCC 발주가 이어질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현대미포조선, 페리선 2척 LOI

현대미포조선이 KiwiRail이 발주할 페리선 2척의 우선협상 건조사로 선정됐다고 보도됨. KiwiRail은 현재 뉴질랜드 남북 도서를 연결하는 항로에서 운항하고 있는 노후 페리선 3척을 대체하고자 계약을 진행했다고 보도됨. 본 계약은 2021년 중반에 체결할 예정이며 건조 공사는 2021년 말까지 끝날 예정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올 글로벌 발주량 24% 증가

Clarksons에 따르면, 2021년 발주량이 지난해 대비 +24% 증가할 전망이다이라고 보도됨. 2020년 말 기준 선박량 대비 수주잔량이 198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인 7%에 불과한 데다 IMO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전망의 근거라고 보도됨. 2020년 말 선박량은 9.1억CGT, 수주잔량 0.7억CGT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Yang Ming, 프랑스에 합작사 설립

Yang Ming은 지난 1일 시장 점유율 확대와 무역 성장 잠재력에 따라 프랑스 물류기업 NAXCO그룹과 공동으로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영업을 개시했다고 밝힘. Yang Ming은 현대상선을 비롯해 일본 ONE, 독일의 Hapag-Lloyd와 함께 THE alliance를 결성하여 아시아-유럽, 지중해, 북미항로에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Scrap prices tipped to breach \$500 barrier as interest spirals

전세계 철강 부족(shortage) 현상으로 인해 폐선가격(scrap price)가 ldt당 500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됨. 특히 방글라데시 폐선 시장 내 가격 상승 추세가 강하게 확인되고 있다고 보도됨. (TradeWinds)

Bank of America expecting oil demand, tanker recovery in 2021

BOA(Bank of America)는 2021년 하반기 탱커 시장의 강한 반등을 전망했다고 보도됨. BOA의 발간자료에 따르면, 석유 수요 회복은 '가능 여부의 문제가 아닌 시기의 문제'라며 수요 회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고 보도됨. 석유와 정유제품 모두 올해 하반기 강한 반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이라고 밝힘. (TradeWinds)